

# Samuel Richardson

근대 소설의 선구자이자 인쇄인

## 새뮤얼 리처드슨

출생 1689년 8월 19일

사망 1761년 7월 4일

출생지 영국 잉글랜드 더버서

활동분야 문학

주요저서 <파멜라>(1740) <클라리사 할로>(1747~1748)

새뮤얼 리처드슨은 명예혁명(1688~89)이 일어난 지 몇 달후인 1689년 8월 19일 잉글랜드 더버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시티(런던의 상업 금융의 중심지구)의 가구 제조공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몬머스 공의 반란에 공감하여 거기에 약간 연루된 바가 있어서, 1685년 몬머스 공이 처형되고 제임스 2세가 즉위한 후 런던을 떠나 10년 정도 살다가 리처드슨이 예닐곱 살이 되던 해에 다시 런던에 돌아왔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17세에 인쇄사에서 일하다 주인 집 딸과 결혼하였으며, 인쇄업자가 되는 도제 교육을 받은 후 1721년 플리트 스트리트 부근 솔즈버리 코트에서 자신의 인쇄사를 차리고 평생동안 이 부근에서 일하며 살았다.

젊은 시절 그는 반정부적인 기질이 강해서 명예혁명으로 왕이 된 윌리엄 3세에 대항해서 퇴위당한 제임스 2세를 재용립하려고 투쟁한 인물들의 저술들을 다수 인쇄했다. 어떤 인쇄업자가 작성해서 정부에 바친 '반정부적인 인쇄업자' 블랙 리스트에 오르기까지 했다.

<파멜라>는 18세기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소설이자 당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설이었다. 주인공 파멜라는 질실하고 아름다운 15세 소녀로 한 귀족 부인의 몸종이다. 소설은 부인이 사망한 뒤 아들인 B씨가 농락하려고 하자 그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 B씨의 마음을 돌려 정식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파멜라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글 형식에 담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73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대의 정치세력을 받아들이고 의회 관련 문서의 인쇄를 전담하게 되면서 승승장구 하여 1754년에는 서적상 조합장까지 지냈다.

어릴 때부터 편지 쓰기를 좋아하여 때때로 이웃 처녀들의 연서를 대필해 주었던 경험을 살려서, 서간체소설의 처녀작 <파멜라 Virtue Rewarded Pamela>(1740)를 출판하였다. <파멜라>는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수많은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제2작품인 <클라리사 할로 Clarissa Harlowe: the History of a Young Lady>(1747~1748)에서는 종래의 종교적·도덕적 우의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정생활 문제, 특히 결혼문제와 연애가 주제로 취급되는 근대소설의 태동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만년에도 인쇄업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점차 더 많은 시간을 플럼과 파슨스 그린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저술을 하면서 보냈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소설인 <찰스 그랜디션 경>(1753~54)을 발표했다. 1761년 사망한 뒤 플리트 스트리트 세인트 브라이드 교회에 안장되었다.

#### 최 초 의 서 간 체 소 설 < 파 멜 라 >

영국의 성공한 인쇄업자였던 새뮤얼 리처드슨은 동료로부터 편지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모범적 편지 형식을 보여주는 서한집을 써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독자들의 관심 속에 1년 만에 5판을 찍는 등 이른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서 <파멜라>를 모르면 문화인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로 선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엄청난 인기에 편승해 존 켈리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유사한 작품을 써서 발표하자, 리처드슨은 직접 후속편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파멜라>는 18세기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소설이자 당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설이었다. 주인공 파멜라는 질실하고 아름다운 15세 소녀로 한 귀족 부인의 몸종이다. 소설은 부인이 사망한 뒤 아들인 B씨가 농락하려고 하자 그 집요

한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 B씨의 마음을 돌려 정식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파멜라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글 형식에 담아 기술하고 있다.

종교적·도덕적 모티브에서 벗어나 결혼과 연애라는 주제로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영국 최초의 심리소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문학사에서도 '서구 근대소설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다. 주인공 파멜라의 시시각각 변하는 미묘한 심리묘사와 아슬아슬한 상황을 간신히 모면해 나가는 모험담,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에 성공하는 낭만적 사랑이야기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소설의 읽는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 근 대 소 설 의 선 구 < 클 라 리 사 할 로 >

그가 영국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종래의 종교적·도덕적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정생활 문제, 특히 결혼문제와 연애가 주제로 취급되는 근대소설의 태동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파멜라>에 이어 제2작품인 <클라리사 할로>(1747~1748)에서도 이러한 맥을 이어나간다.

<클라리사 할로>는 여주인공 클라리사 할로가 재산 때문에 그녀에게 애정없는 결혼을 강요하는 가족들의 위선적인 동기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M경의 조카이며 할로가를 업신여기는 낭만주의자 러블레이스가 등장한다. 절망적인 궁지에 빠진 클라리사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과대평가하고 러블레이스가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하자 그와 함께 도망친다. 그녀는 그의 외모에 이끌리고 폭넓은 세계관에 감동받지만, 그가 자기 방식대로 그녀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클라리사의 친구 안나 하우는 서신 교류를 통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클라리사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클라리사에게 있어 결혼이란 가족에게 도전하게 했던 자신의 의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클라리사가 할로가와 러블레이스 양쪽의 세계를 모두 떠나 천국의 아이로서 죽어간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